

사진과 카메라가 한자리에

서울국제사진영상기자재전, 역대 최대 규모로 코엑스서 개최

제19회 서울국제사진영상기자재전 (Photo & Imaging 2010)이 지난 4월29일부터 5월2일까지 삼성동 코엑스 본관 1층 A홀 (구 태평양홀)에서 열렸다. 삼성전자, 캐논, 니콘, 올림푸스, 파나소닉, 소니 등 카메라 전문 업체와 이미징 업체, 디지털 방송 장비 등 총 112개 업체가 참가했으며, 527부스 규모로 열렸다. 이는 전년대비 28%나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전시회에는 △카메라 및 캠코더 등 사진/영상장비, 관련 주변기기 △현상기 및 관련 장비 / 스튜디오 기자재 및 소모품 부문 △소프트웨어(디지털 전문 포털 사이트, 디지털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 컬러관리시스템(CMS) 등) △앨범 및 사진의상 △디지털 방송영상 장비, 영사기, 촬영기 △사진관련 전문지 / 스튜디오용 관촬물 및 악세서리 △기타(사진학원, 스튜디오 체인점 등이 참여했다.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통해 참관객의 눈길을 끌었는데, Asia-Pacific Print Competition(사진공모전), 10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사진전문동호회인 SLRCLUB의 특별사진전, 일상생활에서 좋은 사진을 찍기 원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6가지 주제(여행, 아기, 접사, 포토샵리터칭, 필름사진, 끌리는 사진)로 세미나가 열렸다.

전문가를 위한 세미나 및 포럼도 열렸는데, 사진인화시장의 과거와 향후 예측 및 사진관의 대응방안, 국내 사진작가의 성공적인 해외진출방안, 한-일사진예술가 작품시장 활성화 대안 모색 등 다양한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중 지난 5월 2일 DATA COLOR는 컨퍼런스룸 327호에서 '컬러가 중요한 디지털 사진가의 작업 프로세스 공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니콘이미징코리아, 콤팩트 카메라시리즈와 풍성한 강좌 마련

니콘은 입구쪽에 대규모 부스를 마련했다. 니콘은 부스에 니콘 DSLR 카메라와 콤팩트 카메라를 전시해 사용자들이 직접 제품을 시연할 수 있도록 했다. 부스 중앙에 마련된 무대에서는 공연과 사진 강좌가 진행됐다. 강좌는 디지털카메라 사용 팁에서부터 촬영 팁, 전문 작가의 강연에 이르기까지 풍성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니콘은 쿨픽스 P100과 쿨픽스 S4000 등 쿨픽스 콤팩트 카메라 시리즈를 다수 선보였다. 쿨픽스 S4000은 터치로 조작이 가능하며 슬림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갖추고 있다. 약 46만 화소에 선명한 화면을 실현하는 '클리어 컬러 패널'을 적용, 최적화된 사진을 재현한다. 얼굴 인식, 스마일 타이머 등의 기능도 함께 탑재돼 있다.

캐논컨슈머이미징, 카메라뿐 아니라 인쇄체험공간도 마련

캐논은 디지털 카메라뿐만 아니라 포토 프린터, 캠코더 제품군을 함께 전시했다. DSLR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포토프린터로 인쇄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을 통해 사용자들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캐논 익서스 시리즈는 물론 파워샷 시리즈도 다수 전시했다. 이중 캐논 파워샷 S90은 하이엔드 콤팩트 컨셉으로 출시된 제품이다. 밝은 조리개 렌즈와 깔끔한 디자인이 돋보여 여성 사용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인쇄 분야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캐논은 전시회장에 포토 프린터를 비치해 사용자들이 사진을 인쇄해 볼 수 있도록 했다.

파나소닉코리아, 신제품 전시를 통해 사용자들의 궁금증을 해소

파나소닉은 이번 전시회에서 신제품인 루믹스 DMC G2를 중점적으로 선보였다.

파나소닉 루믹스 DMC-G2는 이전 모델의 장점인 빠른 AF와 고화질, 동영상 기능을 토대로 시리즈 최초로 회전식 터치스크린 LCD를 장착한 제품이다. 회전형 스크린을 통해 다양한 구도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고, LCD상에서 초점을 맞추려는 부분을 터치하면 자동으로 AF가 동작하는 등 편의성까지 더했다.

소니코리아, 다양한 제품과 미러리스 카메라 전시

소니 콤팩트 카메라는 최근 디자인을 토대로 독창적인 기능을 다수 선보여 화제가 되고 있다. 소니 콤팩트 카메라는 카메라를 들리면 자동으로 파노라마 사진이 촬영되는 스윙 파노라마, 높은 고감도 성능을 지닌 이면조사 센서, 고화질 풀 HD 동영상 촬영 등의 기능을 갖고 있다. 국내 캠코더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소니답게, 이번 P&I 전시회에서도 핸디캠 코너를 별도로 마련했다.



삼성전자, NX10, EX-1을 내세워 풍성한 볼거리 제공

삼성전자는 이번 행사의 공식 협찬사답게 가장 큰 규모의 부스를 마련했다. 부스 크기만 큰 것이 아니라, 신제품 NX10, EX-1을 비롯해 모든 제품군을 전시했다.

삼성전자 하이브리드 NX10은 APS사이즈 이미지 센서를 장착한 미러리스카메라다. 판형의 장점을 살려 고화질, 고성능을 지원하며 휴대성까지 지녀 여성 사용자들에게 인기있는 모델이다. 국산 제조사인데다 올해 안에 다양한 렌즈군을 확충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EX-1은 F1.8의 빠른 조리개와 슈나이더 줌 렌즈, 회전형 AMOLED 디스플레이 등을 내장한 디지털 카메라다. 삼성 콤팩트 카메라 최상위 모델로, 중상급 사용자들에게 매력적인 기능을 다수 내장하고 있다.



올림푸스한국, 다양한 신제품과 체험 공간 마련

올림푸스는 마이크로포서즈 카메라 PEN 시리즈를 중심으로 E-시스템 DSLR 카메라와 콤팩트 카메라 부스를 마련했다. 행사장 중앙에는 PEN 시리즈를 위한 공간이 마련돼 PEN 제품 시연은 물론 출시 예정인 제품을 직접 다루어볼 수 있게끔 했다. 이와 함께 PEN 시리즈로 진행된 사진 전시회도 함께 진행했다.

올림푸스는 다양한 콤팩트 카메라 라인업을 지녔다. 이 가운데 최초로 광학 30배 줌 렌즈를 장착한 SP-800UZ와 완전방수 모델인 뮤 터프 시리즈의 인기가 가장 높았다. G

임남숙 차장sang@print.or.kr